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독성 해파리떼가 대거 출현, 피서객들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들의 안전 대책은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각 자치단체가 해수욕장 개장 이후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피서객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무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 해수욕장 해파리 무대책

피서객 잇단 피해 불구 지자체는 무신경 차단망 설치 단 한 곳도 없어 안전 '뒷짐'

7일 전남도와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달 개장한 전남도내 65개 해수욕장 중 해파리로부터 물놀이객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망이 설치된 해수욕장은 전무하다. 목포해경이 안전관리를 맡는 신안 우전·대광, 영광 가마미, 무안 홀동·돌머리,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등 15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만 지난해 100만명을 넘었지만 해파리 차단용 그물망을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보성 울포, 여수 방죽포, 고흥 남열리 해수욕장 등 여수해경 관할 15개 해수욕장도 비슷한 실정이다. 고작 해경 등이 '해수욕장 안전관리매뉴얼'에 응급 대처법을 적시하고 피해 발생시 치료해주는 게 전부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6월 해파리떼 출현율이 치솟으면서 보성 득량만 일대에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물놀이하다 해파리에 쏘여 치료를 받는 피서객들도 잇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무신경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27일 무안군 돌머리해수욕장을 찾았던 진모(18)양 등 2명은 물놀이 중 해파리에 쏘여 치료를 받았고 박모(14)군은 지난달 28일 보성 울포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였다.

수산과학원은 또 강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남해 전해역의 맹독성 해파리 출현이 증가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치단

체들은 설치 예산(1500만원 상당) 마련이 힘들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 '물놀이객 안전'에 뒷짐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미 수십만명이 다녀간데다, 태풍 뒤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훨씬 많은 물놀이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전남 해변으로 놀러오세요'라는 형식적인 홍보 외에 물놀이객 안전을 고려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뜰이나 세월호 침몰 참사 및 태풍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무신경이 전남을 찾는 관광객 급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나온다.

여기에 해수욕장 내 수상구조장비, 구조인력 등이 미흡한 해수욕장도 적지 않아 보강이 필요한 형편이다.

여수해경 관할 해수욕장 중 수상 오토바이, 고속제트보트 등 해상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한 해수욕장이 6곳이나 되고 목포해경도 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수상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해수욕장 내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 사고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각 시·군에 해파리 유입 방지망 시범 설치를 계획중이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쌀 개방 항의...농기계 반납 시위 7일 오후 광주·전남 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정부의 쌀개방 정책에 항의하며 농기계를 전남도청 앞에 반납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윤일병 직접 사인은 구타...병원 이송시 이미 사망”

수사 축소·은폐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 전면 재수사 촉구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윤 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

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따라서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일병의 사망 시점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 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주범인 이 병장이 윤 일병이 사망할

바랐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변인 진술도 추가로 공개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목격자인 김모 일병은 4월 6일 밤 윤 일병이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 병장으로부터 “뇌사상태가 이어져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존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절도 혐의가 있는데도 군 검찰관이 이를 공소 사실에서 누락시켰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가혹행위 못건며 자살한 병사 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 폭력 실태가 집중 조망받고 있는 가운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무살 되던 2010년 육군에 입대한 민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징책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민 이병은 자대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서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가 포착됐으나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주범 이병장 복무적합도 검사 ‘군대에서 사고 칠까봐 걱정’ 기록

군, 예방 소홀...사후 수사도 부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사건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고 사후에도 부실 수사를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7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주범 이모(25) 병장의 2012년 9월 14일 자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표를 보면 이 병장은 개인사 비행 경험 부분에서 학창시절 비행경험 란에 ‘주위 사람들은 내가 군대에서 사고를 칠까 봐 걱정한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학창시절 반이나 동아리에서 싸움을 자주 일으켰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 1월 29일 이뤄진 이 병장의 적성적응도 검사표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나 분노감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이

거나 자기과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내적 우울감과 좌절감이 상승해 있고 군 생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기술돼 있다.

이 같은 기록만 주의 깊게 보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은 같은 부대 병사로부터 윤 일병의 집단구타 사실을 제보받은 뒤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모 상병은 사건 당일 휴연장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인 지모(20) 상병을 만나 윤 일병이 집단구타를 당하다가 마쳐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대로 말하라는 설득에도 지 상병이 “윤 일병이 이대로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 이

거 사실대로 말하면 이 병장에게 맞아 죽을 수 있다”며 거부하자, 김 상병은 본부 포대장인 김모 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들은 내용을 제보했다.

그러나 정작 김 중위는 제보를 받고 나서 9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에야 지휘통제실에 사건을 지휘 보고해 가해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헌병대와 검찰관은 이후 수사서에서조차 허술함을 드러냈다. 군인권센터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사건 당일 윤 일병이 국군 양주병원에 이송됐을 때 군의관이 타박상 흔 등을 보고 동행한 인솔 간부에게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친집서 전·현 남친 새벽 난투극

○...20대 여성을 두고 옛 남친친구와 현재 남친 친구가 새벽 난투극을 벌이다가 주인의 신고로 나란히 경찰서행.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보(32)씨는 이날 새벽 3시30분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 건물에 헤어친 여자친구 백모(24)씨를 만나기 위해 번호기를 열고 여자친구의 방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귀기환 여자친구 백씨가 갑작 놀라 남친친구 오모(24)씨를 불렀다가 싸움이 시작됐다. ○...새벽 다툼 소리에 놀라 깨어난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들은 경찰에서 “옛 여자 찾지 말고 돌아가라는 데도 돌아가지 않자 화가났다”, “잠시 만나러 온 것인데 들어서 나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저마다 분통. /백희준기자 bhj@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5백만원

29P - 사무실 적합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오피스빌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1천만원에 월10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천만원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